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2
vol. 49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남은 미래를 위해

동문네라, 대한민국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2년 겨울호

시론

- 3 그렇게 전통이 쌓여
우리의 중앙이 되었더라
김보원(34회)

당선인사말

- 5 동문 여러분,
포용하는 호랑이 기운 듬뿍 받으십시오
최광훈(22회) 제40대 대한약사회 회장
- 6 약사의 품격과 약국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래(26회) 충청남도약사회장
- 7 품격있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달(27회)경기도약사회장

동문회소식

- 8 화보
- 10 우리가 하나 되는 한걸음!
멘토링 2021

동기회소식

- 13 막을 수 없는 세월, 오래 오래 건강하기를
박석동(15회) 동기회장
- 15 시련과 위기를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아
김광호(25회) 동기회장
- 17 입학과 졸업년도는 뿔 속 깊이 각인된
또 다른 자아
오창현(35회)

문학산책

- 25 그날 교황님을 찾아뵙지는 않았다
-바티칸 박물관 관람기
박희용(23회) 편집위원

학교소식

- 32 · 손의동(22회) 약학대학 명예교수,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수상
- 2021학년도 진정주(38회) 동문 발전
기금 전달식 및 장학기금 수여식
- 약학대학 천영진 교수,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성물연변이 발암원학회 회장
취임
- 故 손동현(1회) 약학대학 명예교수
강의실 헌정식

35 장학기금

36 회비내역

38 만평

39 편집후기

약국도움이야기

- 19 눈이 뻑뻑해서 머리까지 아파요
- 안구건조증의 이해
편집위원회

그렇게 전통이 쌓여 우리의 중앙이 되었더라

유난히 어수선한 세상에도 시간은 흐르니
壬寅年 새해의 달력을 벽에 걸며

가벼운 글들이야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정리하면 되지만
시론이라니 엄습하는 무게감이 무겁기 한량 없다

그 무게감을 엄숙함으로 포장하는 대신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예의이지 싶다

루이스가든, 영신관, 파이프홀을 오가던 파릇파릇했던 34회 약학도들도
이제 제법 머리가 희끗해지고 있으니
가끔씩 학생시절 은사님은 물론
제법 손가락 꼽을 수 있을 만큼 가깝던 선배님들
유명을 달리하신 소식이 새삼 놀랍지 않다.
누가 언제 어떻게 쓰았는지 모르는 화살이
중년의 과녁에 꽂히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볼 상황이 되었다.

「남산이 영을 넘어 바라보이고
뒤로는 관악산이 우뚝 솟았네
한강수 굽이치는 노들의 강변
명수대 송림 속에 우뚝 선 중앙

의에 죽고 참에 삶이
모교의 정신
세계에 빛내세
우리 중앙대학교」



김 보 원(34회)

기억이나 할까? 중앙대학교 교가~
몇몇 선배님들이 작심하고 만드신
「약학인의 노래」는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기로 한다.

그렇게 시간은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갈 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전통이란 무엇일까?

개국 약사 생활만 하다가
약간의 책임과 봉사의 마음으로 단체의 일을 맡아보니
보일듯 말듯 느껴지는 외부의 시선
부러움? 약간의 시기심?
약사사회의 메이저 그룹 중앙대 약학대학 출신,

다른 학교 출신들은 꿈꾸지 못하는 어떤 일들도
중앙의 이름으로는 가능해지더라

그 까짓거 못할 거 없지 하는 가벼운 마음
중앙이기에 더 쉽게 다져 먹을 수 있더라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하기에 그럴겠지만
또 그만큼 훌륭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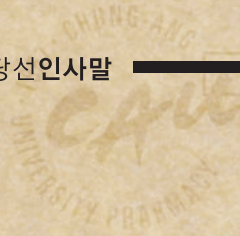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중앙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우리 동기 기수가 34회인데 입학한 지 36년이 지났으니
올해 입학생은 70회가 되겠군
30년만 더 살면 100회 후배들을 볼 수 있겠고

약사사회 여러 곳에서
중앙의 전통으로 중앙의 자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중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통이 쌓여가리라

중앙! 중앙! 대중앙!



동문 여러분, 포효하는 호랑이 기운 듬뿍 받으십시오



최 광 훈(22회)
제40대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 어려운 와중에도 모든 걸 곳곳하게 잘 극복해 내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 격려와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망의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검은 호랑이의 날렵함과 지혜를 모아 개국가, 병원,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인인 약사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시리라 믿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말입니다.

저희 동문회도 권석형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의 노고와 일반 회원들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모교와 동문회의 장학사업을 비롯한 각종 후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문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40대 대한약사회 선거에서 동문님들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었습니다. 시대적인 소명과 이 시국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직을 성실히 그리고 정도에 입각해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동문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전국 모든 약사님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로서는 언제나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동문님들이 계시기에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발맞추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포효하는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으시어 동문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을 거뜬하게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사의 품격과 약국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래(26회)
충청남도약사회장
당선인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권석형 동문회장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선·후배님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남약사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거 기간 중에 동문회 서동철 부회장님과 최병원 사무총장님이 우정 충남약사회관까지 찾아주시고 직접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노력과 지원의 덕분으로 당선의 영예를 차지한 것으로 굳게 믿으며, 동문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3선 지부장이 됩니다. 회장직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저로서는 지난 6년을 거울삼아 충남 약사회원님들께서 맡겨 주신 3년을 오로지 회원과 약국을 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일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합쳐져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장 급한 회무만 보더라도 약사의 품격과 약국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습적인 조제약 할인 행위와 의사의 처방전 갑질, 한약사 불법행위, 약 배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또한 담합의 여지가 없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습니다.

약사회원 한분 한분이 보다 안정된 약국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관 회무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이런 산적한 일들을 혼자서 할 수는 없겠지요. 다행스럽게 대한약사회 최광훈 당선인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당선인 등 동문 선·후배님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낌없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문 선·후배님들께서 약사회에 쏟아놓으신 수많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찰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선·후배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품격있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영 달(27회)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동문 선배 후배님!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는 그간 코로나 19로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짝 펴고, 용맹스런 호랑이처럼 진취적인 모습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에 힘입어 저는 앞으로 3년간 경기도 약사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약사권익을 대변하는데 앞장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기 내내 3년 전 품었던 초심으로 약사의 가치 증진과 권익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추진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을 비롯해서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주셨던 소중한 동문들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그 어느 때 보다 더 치열하게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맹렬한 기세와 약사직능을 왜곡, 침해하는 외부 세력의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어려운 현 상황에 안주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현재 의 우리보다 후배들의 미래, 그리고 향후 약사직능은 더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의 상황에서 중앙대 약대 동문회지는 동문 간 소통은 물론, 다양한 지혜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場)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한층 공고히 해줄 회지 발간을 위해 힘쓰신 권석형 동문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앙대 약대 동문 여러분!

평소 경기도약사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약사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경기도약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항상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약사회가 어려웠던 순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약대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화합 그리고 모든 동문 선배, 후배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7일_ 35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
동문회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전달식

01

1월 15일_ 신년교례회(Zoom화상회의)

02



1월 15일_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회장
 당선축하패 수여식

- 01-1
- 01-2
- 01-3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박정래(26회) 충청남도약사회장 당선인



박영달(27회)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인

우리가 하나 되는 한걸음!

멘토링 2021

다양한 인재육성 인간관계 활동 Multiple-way Developmental Relationship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과 동문회가 함께 동문 간 결속력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약대 전통의 프로그램인 '멘토링 2021' 프로그램이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실습을 앞둔 2021년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병원약국, 지역약국, 제약회사 및 기타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멘토단은 직능분야별 전문성과 인지도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준비위원, 기존 멘토단 및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고, 이번 멘토링 2021에는 총 11분의 멘토 분이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부터 중앙대학교 103관 스마트강의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린 『멘토링 2021 발대식 및 특강』을 시작으로 약 한 달 간의 멘토링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멘토-멘티들에게 동기부여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서약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앞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에게 여러 경험을 나누어 줄 멘토단의 소개가 있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수정 동문(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장)이 “공직 약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평소에 접하기 힘든 식약처와 공직약사의 역할 및 비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준 뜻깊은 특강이었다. 이어서 박혜진 동문(식약처 보건연구사)도 보다 학생들과 가까운 학번의 선배로서 특강을 통해 식약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지원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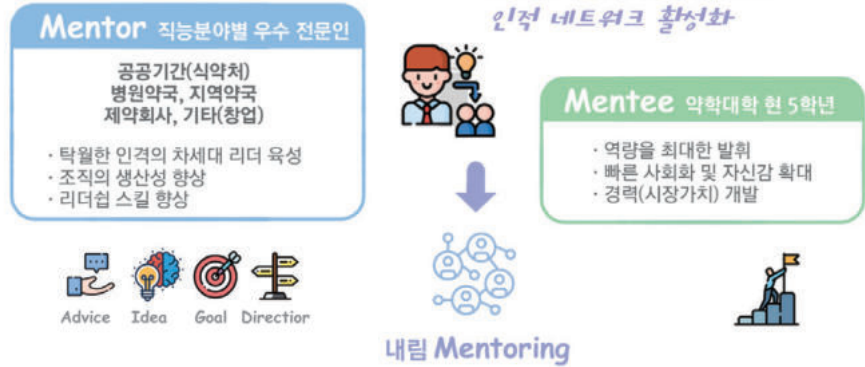
발대식 이후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직능분야별 소그룹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멘토링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각 분야별로 좀 더 체계적인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분야별 특강』이 11월 8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온라인 zoom으로 열렸다.

멘토링 2021 멘토단

공공기관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	기타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윤희정 울산동강병원	양미선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정화용 엔터하츠
박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곤 부천 바른손약국	임양순 인천성모병원	문희석 한국다케다제약	박인철 안국약품
			박인철 안국약품	정병찬 블루엠텍



"Mentoring 2021"



지역약사 분야에서는 이정근 동문(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지역사회 약사로 산다는 것”), 병원약사 분야 윤희정 동문(울산동강병원 약제팀장, “병원약사 커리어”), 제약회사 분야 양미선 동문(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디렉터, “제약회사에서 일하기 101”), 기타(창업) 분야 정화용 동문(엔터하츠, “가슴 뛰는 일을 하라”)이 어떠한 커리어패스를 밟았고 어떠한 계기로 본인들의 분야를 선택했는지 등 다양한 인생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모여 축하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멘토링 2021 성과보고회』 역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11월 26일 5시부터 103관 스마트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선배 멘토 분들과 멘티로서 알찬 경험을 공유한 재학생들, 김하형 학장을 비롯한 약학대학 교수들과 권석형 약대 동문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도환 학생(병원약국 분야)과 신효은 학생(제약회사 분야)이 멘티 대표로서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진정주 동문(진정주 약국 대표약사,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쉬운 길”)과 권석형 동문회장(노바렉스 대표이사, “나의 경영이야기”)의 특강을 마지막으로 멘토링 2021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비대면 사정상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직접 전달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 학생들이 따로 행정실에 방문하여 수료증을 수령하고 동문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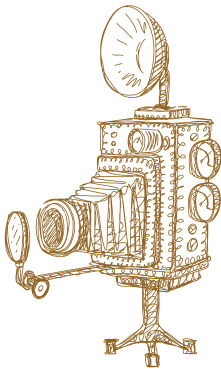
이번 멘토링 2021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약학대학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 발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 석 동 (15회)
동기회장



막을 수 없는 세월, 오래 오래 건강하기를

15회 동기회 졸업 50주년의 상념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간이 정지한 지금,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5회 동기회가 졸업 50주년을 맞았지만 변변한 기념식은커녕 얼굴을 대면하는 일조차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동기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나마 담담하게 밝힘으로써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도 시간만 나면 장항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아간다. 나의 고향은 충청도 최남단 서해바닷가와 가까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작은 읍내인데, 약사이셨던 부친께서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약국을 하셨다. 일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석 명절날이면 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의 손을 잡고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를 했다. 선산에 가서 서너 시간을 정성스럽게 벌초를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다.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저만큼 멀리 왼쪽에는 새만금 금강하구둑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일제 강점기 때 금을 제련했던 장항제련소가 보인다. 아버지께서는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보시면서 "세월도 저 강물처럼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마른 수건으로 나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셨다.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는 속으로 말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7년 그해 봄날은 날씨가 무척 따뜻하고 화창했었다. 그리고 강의실로 들어가는 많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은 정말 멋지고 보기 좋았다.



2011년 15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사진

“

안타까운 동기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나마
담담하게 밝힘으로써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랬으면 좋겠다

”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 있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시간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는 약학대학을 다니면서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좋은 기억이 하나 있다. 당시 우리대학교에는 초가을쯤에 한강축제가 있었는데 축제를 주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돌면서 팽과리도 치고 작은 소북도 신

명나게 치면서 그야말로 학교나 학생들이 축제 분위기였다. 학교 축제 때 나에게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내 전공과는 전혀 다른 것에 도전을 해보았다.

1970년 10월 초 4,000여 명이 응시한 MBC TV 탤런트 시험에 응시해 보았다. 탤런트가 나의 전공과는 생판 다르기도 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도전이었다. 3차까지 가는 시험은 연극영화과 재학중인 학생, 그리고 졸업한 사람 또는 현역 연극배우들이 응시했기 때문에 보통 힘든 도전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최종 3차 시험까지 치르고 당당히 MBC TV 탤런트 3기에 합격, 방송국에서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기도 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도전이고 멋진 대학생활이었다.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대학 시절의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 좋은 기억이 있다.

우리 약학대학 15회 동기 중 37대, 38대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된 조찬휘 동기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6년 동안 전국의 약사들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며 우직하고 진솔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았고, 지금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 물줄기가 저 큰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도 세월은 흐른다.

옛그제 약학대학 15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 졸업 50주년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보다 새해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말이 듣기가 더 좋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 광 호 (25회)
동기회장



시련과 위기를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아 중앙대 약대 77학번(25회) 졸업 4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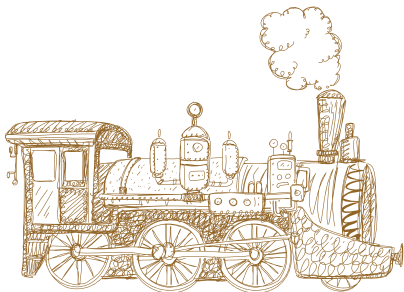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베이비부머 세대인 우리 77학번을 대표하여 졸업 40주년에 대한 원고 요청을 받고 한동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벌써 40주년...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격하게 세상과 씨름하면서 약학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동기들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 누가 나에게 “우리 세대는 말이야 최악의 빈곤과 선진국의 모든 경험을 모두 맛본 세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소득 1,000불 이하부터 30,000불 이상의 발전상을 같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 어느 세대보다 공감하는 스펙트럼이 넓다고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시련과 위기가 많이 있었고, 그 시련과 위기를 보통 인생에 있어서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은 순조로운 인생항로에서는 암초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을 당당히 딛고 일어서는 순간 걸림돌이 아닌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후배들을 이끄는 우리 77학번 동기들입니다.



학교 교정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임영신 이사장님 동상, 파이프홀 연구동, 청룡연못의 추억, 학교 앞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추억들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지금 흰 머리카락을 빗어 올리는 동기들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2017년 6월 25일 졸업 36주년 기념 제주도동기여행 사진

일찍이 약국에서 제약업계로 투신하여 한국BMI제약을 성실히 경영하는 이광인 동기, 최근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해서 간발의 차로 석패한 최두주 동기, 인천시 약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약사회 초석을 마련한 조석현 동기, 언제나 파이퍼홀에서 늦게까지 연구를 하며 학문을 갈고 닦아 세명대학 교수로 있는 고성권 학장과 조순현 교수, 한결같이 모교 약학대학을 지키고 있는 이민원 교수, 한방 과학화를 주장하면서 일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춘규 동기, 수원토박이로 언제나 동문회 일에 앞장서는 이내흥 동기, 일찍이 구리시에서 시의원을 역임한 김희섭 동기, 과감히 제약사를 사직하고 약국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수영, 김태원 동기, 대전시 마약퇴치운동본부장으로 마약퇴치운동에 앞장서는 문태화 동기, 백제의 기상을 영원히 외치는 백광현 동기 등 일일이 모든 동기들을 거론하기는 지면상 어렵지만 많은 동기들이 아직도 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 자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동기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약학도의 길을 걸으면서 당당히 살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회 모든 분야가 침체되고 서로의 만남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이로 인하여 2021년 졸업 40주년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대로 지나가지만, "This too shall pass(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2022년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운도 불행도 사랑도 증오도 모두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이 시련 또한 지나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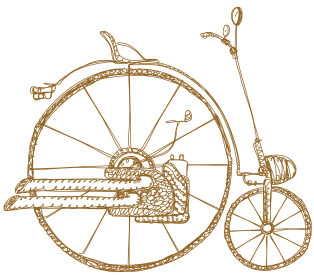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격하게 세상과 씨름하면서
약학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동기들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

약대 77학번 동기 여러분! 그때 젊은 시절 청운의 꿈을 꾸던 그 곳 교정에서 우리 만나 격하게 포옹하며 회포를 풀어 봅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노년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입학과 졸업연도는 뺏 속 깊이 각인된 또 다른 자아

오 창 현 (35회)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

저희들은 87학번, 35회 졸업생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이라는 명예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으로 전체가 모이는 행사는 할 수 없었지만, 문자 메시지와 영상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과 옛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깔깔 대며 많이 웃었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까지 지역 주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기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래 글은 졸업30주년 모임을 위해 동기임원단 중 '이성주' 님이 작성해 SNS 동기 모임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 동기들의 하나됨을 다시 일깨워준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모임 대신 동창회보에 남겨서 간직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내 나이는 기억 못해도 “몇 학번이세요?” 물어보면 반사적으로 “87입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대학 입학과 졸업연도는 뺏속 깊이 각인된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합니다.

빛나는 20대였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전달식



중앙대 약대 87학번 졸업 20주년 기념식

“
전체가 모이는 행사는 할 수 없었지만,
문자 메시지와 영상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과
옛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깔깔 대며 많이 웃었습니다”

실수를 연발하던 낡은 실험실에서,
출석보다 대출이 많았던 강의실에서,
자리만 맡아 놓고 사라지던 도서관에서,
신문지 깔고 새우깡에 소주 들이키던 루이스가든에서,
시험 때만 열심히 찾아 가던 복사집에서,
죽치고 놀던 약대 카페에서,
선배님 지갑 털어 가던 갈비집 골목에서,
서로에 대해 인생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어요.
그때의 추억과 술잔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어요.
어느덧 시간이 당시 우리 나이보다도 더 지나 졸업하고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치열하게 잘 살아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구와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 칭찬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보낼 것을
당부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졸업 30주년의 해를 기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졸업 20주년과 마찬가지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진행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모임
이 가능해지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임과는 별도로 우리가 학교 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동문회
발전 기금과 장학금의 전달을 위해 친구들의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여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오해하거나 외면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드리는 계좌로 십시일반 송금해 주시면 소중이 전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하루 빨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백백해서 머리까지 아파요 - 안구건조증의 이해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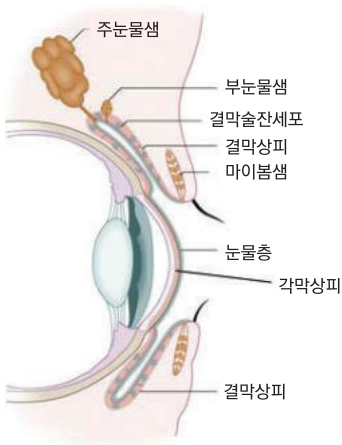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안과를 찾는 가장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안구건조증 때문인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이 잘 되거나 밀폐된 사무실처럼 낮은 습도나 환기 부족으로 항상 건조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어 눈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거주 환경이나 생활 패턴 등이 안구건조증의 유발을 부추기고 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도시 인구의 90% 이상이 안구건조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대인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다.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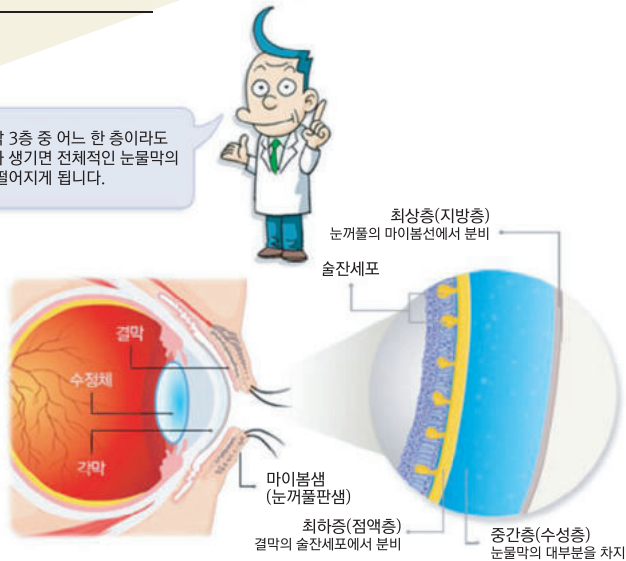
안구건조증(dry eye syndrome)이란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어 부족하거나, 눈물이 분비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증발되거나, 아니면 눈물을 구성하는 성분에 변화가 생겨 성분간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데,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이물감이나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눈물 분비 감소에 따른 건조감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눈물의 정상적인 분비와 순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눈의 불편감이나 시각기능 이상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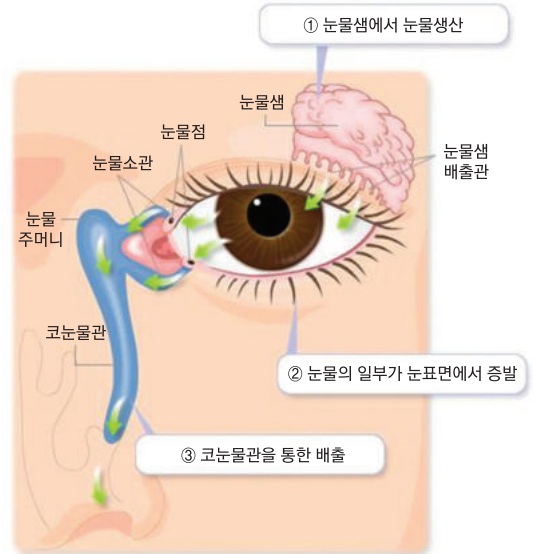


눈 표면의 구조

눈물막 3층 중 어느 한 층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눈물막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눈물막의 구성



눈물의 생산과 소실

반하는 눈 표면(각막결막상피)의 만성적인 질환을 의미하며, 건성안(乾性眼) 또는 눈마름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눈물(tear; lacrimal fluid)

우리 눈의 까만 눈동자를 덮고 있는 표면이 각막이고 그 옆의 하얀 부분이 결막이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 표면(ocular surface; 각막상피-결막상피)에 눈물이 고르게 퍼지게 되고, 이때 눈물은 각막과 결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어 눈꺼풀과의 마찰을 줄이게 된다. 또한 눈물 속에는 각종 항균성분(면역글로부린, 락토펜린, 리소짐)이 들어있어 눈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고, 이물질들을 씻어내기도 한다.

결막에는 혈관이 있어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각막에는 혈관이 없으므로 눈물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런 눈물의 역할 때문에 눈물이 모자라면 눈이 까칠까칠해질 수도 있고, 심하면 각막과 결막이 손상되기도 한다.

눈물의 기능

- 눈 표면 윤활, 건조 방지
- 산소와 영양분 운반
- 살균
- 이물질 세정

눈물은 크게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액층(뮤신층; mucus layer) : 가장 안쪽 층으로 결막의 솔산세포(goblet cell)에서 분비되는 점액성분(뮤신)이 각막과 결막을 얇게 덮어 수성층이 고르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여 눈물막이 눈 표면에 고정되게 한다.

수성층(수분층; aqueous layer) : 중간층으로 눈물샘(lacrimal gland)에서 만들어진 물 성분의 눈물이 눈물층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한다. 눈 표면의 각막과 결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눈 표면에 세균이 부착되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항체나 면역반응 물질을 운반하기도 한다.

지방층(지질층; lipid layer) : 가장 바깥층으로 윗눈꺼풀과 아래눈꺼풀 테두리에 위치한 지방선인 마이봄샘(Meibomian gland)에서 분비된 지방질로 덮여있는데, 눈물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성층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코팅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점액층과 수성층 사이는 뚜렷한 경계가 없고, 뮤신층은 막형 뮤신(transmembrane mucin)이 매우 고밀도로 존재하고, 수성층에는 분비형 뮤신(secretory mucin)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물은 약 10%는 증발되고, 눈물점(lacrimal punctum; 눈물이 빠져나가는 입구), 눈물소관, 눈



다음의 증상 중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구건조증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 1)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이물감이 있다.
- 2)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까지 아픈 것 같다.
- 3) 눈이 뻑뻑하다.
- 4) 눈앞에 막이 낀 듯하다.
- 5) 눈이 쉽게 피곤해서 책을 오래 못 본다.
- 6) 바람이 불면 눈물이 더 쏟아진다.
- 7) 이유없이 자주 충혈된다.
- 8) 안과에서 결막염 치료를 받았지만 실통치 않았다.
- 9) 잘 쓰던 콘택트 렌즈의 문제가 자주 생긴다.
- 10) 자고 나면 눈꺼풀이 들러붙어 잘 떠지지 않는다.



- 11) 눈부심이 있으면서 눈이 자주 감긴다.
- 12) 눈이 쉽게 피로하다.
- 13) 눈이 쏟아지는(빠지는) 느낌이 든다.
- 14) 건조한 곳이나 오염이 심한 곳에서 가끔 눈이 화끈거린다.
- 15)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울기가 힘들다.
- 16) 실 같은 분비물이 자주 생긴다.
- 17) 눈꺼풀이 무겁다.
- 18) 지속적인 시각 집중이 필요한 독서, 컴퓨터 작업이 건디기 어려워진다.
- 19) (건조증이 심하면) 빛에 비정상적으로 민해지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시력이 감소된다.



안구건조증의 주요 증상

물주머니, 그리고 코눈물관을 통해 코안으로 배출된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수성층이 부족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지방층이 문제가 되어 수성층이 빨리 증발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

안구건조증의 증상으로는 눈의 자극감,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 콧콧 쑤시거나 눈이 타는 듯한 작열감, 침침하게 느껴지는 눈의 불편감, 가려움, 눈부심, 갑작스러운 과도한 눈물 등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날 때 눈을 감고 있으면 다소 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건조한 환경에서 장시간 집중하여 눈을 사용할 때, 바람이 많이 부는 곳, 햇빛이 강렬한 곳, 공기가 환탁한 곳 등에서 심해진다. 오후로 갈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뻑뻑하다", "눈앞에 뭐가 낀 것처럼 침침하다.", "눈이 너무 피로하다.", "충혈이 된다.",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뜨기가 힘들다.", "잘 써오던 콘택트렌즈가 불편해졌다",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다." 등 불편하다는 느낌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합병증

안구건조증은 드물게 이차적으로 각막 손상 등도 초래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심각한 질환은 아니며, 만성화되면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만 실명하거나 눈이 망가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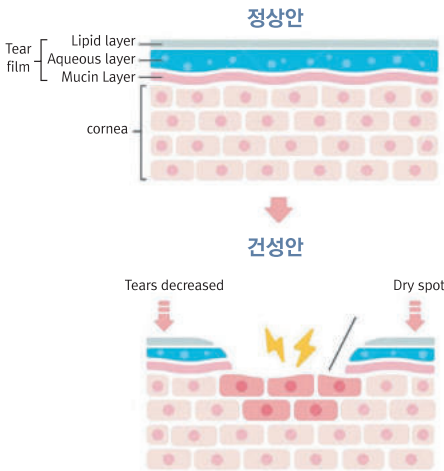
다시 말해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 다수 나타나지만, 다행히도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심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눈 표면의 만성적인 염증과 감염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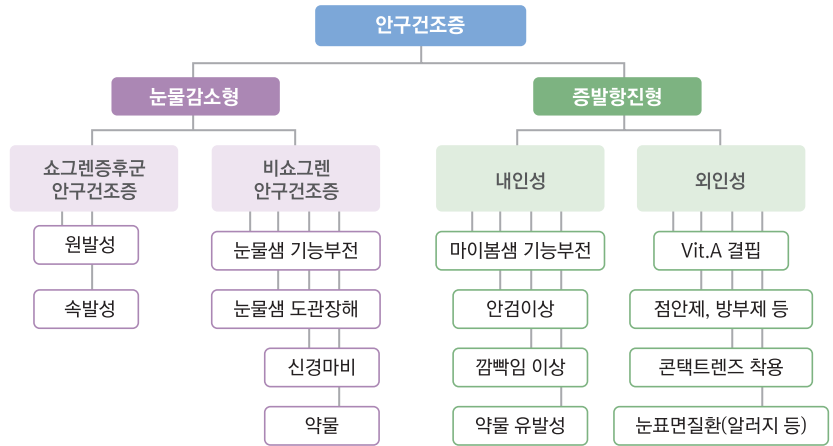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적셔서 부드럽고 편안한 눈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눈 표면의 눈물은 눈물샘에서의 눈물 분비에 의한 눈물의 생산, 코눈물관을 통한 코 쪽으로의 배출, 눈 표면에서의 증발 등의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지된다.

만일 이 요인들이 서로 적절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눈물 자체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눈물층이 질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눈마름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노화 : 안구건조증은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호발하는데, 노화는 안구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정상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 눈물의 분비량이 감소하고 눈물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정상안과 건성안의 눈 표면



안구건조증의 분류(DEWS report)

동반 질환 : 류마티스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SjOgren syndrome; 입, 눈 등 몸 전체 점막에 염증이거나 건조가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 루프스, 공피증, 당뇨병, 비타민 A 결핍증 등의 질환이 있으면 눈물 생산량이 줄어든다.

만성결막염 : 결막에서 점액 분비선 역할을 담당하는 술잔세포들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줄어들면 점액 분비량이 적어져 수분을 점액층에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수성 눈물층이 곧 눈물관을 타고 코로 흘러나가게 된다.

갑상선 질환 :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눈이 커져 과도하게 눈물이 증발되거나,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눈물생성이 감소 될 수 있다.

여성호르몬 감소 : 갱년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되면 눈물 생성이 줄어든다.

약물 복용 :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지사제, 부교감신경차단제(스코폴라민), 고혈압치료제(베타차단제), 수면제, 피임약, 일부 여드름 치료제, 일부 항우울제, 일부 마취제 등은 눈물생성을 감소시킨다.

환경 요인 : 주위 환경이 건조하거나, 연기나 먼지 자극, 햇볕, 바람 등으로 눈이 자극되거나, 독서나 컴퓨터를 하

면서 무의식 중에 눈 깜박임의 횟수가 줄어들면 안구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기타 : 만성 피로, 방사선이나 염증으로 인한 눈물샘 손상, 장기간 콘택트 렌즈 사용에 따른 각막의 예민성 감소, 지방 분비선 염증에 따른 지방 분비 감소로 과도한 눈물 증발, 눈꺼풀 문제(눈꺼풀 속말림, 눈꺼풀 겹말림, 눈꺼풀 염), 라식수술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진단/검사

일반적으로 안구건조증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세극등 검사(slit lamp biomicroscopy; 일종의 현미경 검사로 눈을 최대 40배까지 확대하여 자세히 볼 수 있음)를 시행하여 각결막의 건조상태, 눈물띠의 두께, 각막의 염증 유무, 눈꺼풀 테의 염증 유무와 정도 등을 검사한다.

쉬르머 검사(Schirmer's test; 하안검에 5분 정도 종이를 끼우고 있는 동안 종이를 적시는 눈물량이 10mm 이상으로 확인되면 정상, 5mm 이하인 경우 눈물 생성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를 통해 눈물 분비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각막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막을 염색하여 각막 상피를 검사하기도 한다.

① 세극등현미경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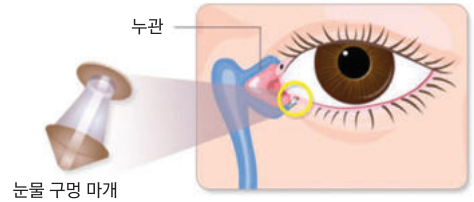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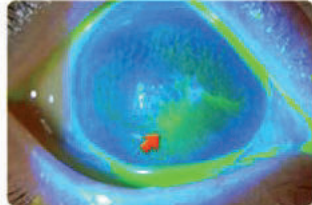
② 눈물막안정성검사(Tear Break-Up Time : TBUT)



③ 눈물분비량검사(쉬르머검사 : Shimer test)



④ 염색약물 투여 후 안구검사



안구건조증의 진단

눈물점 폐쇄술

치료

안구건조증의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 수성층의 부족에 따른 안구건조증은 인공눈물 점안, 지방층의 부족에 의한 눈물 증발 증가일 경우에는 눈꺼풀 염증 치료를 시행하고, 안구의 염증이 주된 원인일 경우 항염증 치료를 시행한다.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은 인공눈물 점안이며, 필요하다면 눈

물점을 막아 배출되는 눈물의 양을 줄이는 수술적 방법을 쓰기도 한다. 원인 질환에 의해 안구건조증이 유발되면 해당 질환 치료로 호전된다.

약물치료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눈물층을 잘 유지하기 위해 인공눈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점안한다. 인공눈물 (artificial tear)은 생리식염수 기준의 등장액으로, 장기간 자주 점안해도 별 부작용이 없으며 물약, 젤리, 연고 등의 형태로 상품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편한 것을 선택한다. 인공눈물에 포함된 보존제 성분에 자극성이 있는 사람은 1회 점안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병행하여 생체고분자인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액을 사용하면 눈 표면을 피복하여 눈물의 증발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보다 전문적으로는 눈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를 자극하여 뮤신이나 눈물의 분비를 증가시켜 주는 디쿠아포솔나트륨(diquafosol sodium) 같은 약을 쓰기도 한다. 결막염이 심하거나 눈꺼풀 염증이 있으면 내복약으로 염증 치료를 해야 한다.

면봉에 깨끗한 식염수나 안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묻혀서 속눈썹이 나오는 부위를 하루 2~3회 정도 닦아 주거나, 눈꺼풀 청결제로 눈 주위를 가볍게 닦아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5~10분 정도 온찜질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 눈이 쉰다고 따끔거린다.
-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눈이 빛에 예민해 밝은 곳에서 눈을 뜨는 것이 힘들다.
- 시야가 흐리고 시력이 떨어진다.
- 독서 또는 TV 시청시 지장이 있다.
-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된다.
- 건조한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에 있으면 눈이 불편하다.
- 바람이 부는 날에는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 해당 항목이 3~4개이면 증상 의심 / 5개 이상이면 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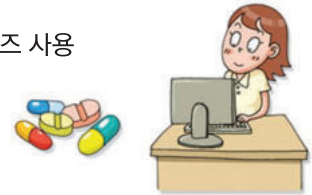
안구건조증의 자가진단



- 1) 머리 염색
- 2) 화장품, 자극성 세면용품
- 3) 에어컨, 선풍기, 히터
- 4) 장시간의 독서, TV 시청, 컴퓨터 작업
- 5) 심한 긴장, 스트레스



- 6) 건조한 밀폐 공간(예. 겨울철 아파트)
- 7) 여러 약제 : 신경안정제, 고혈압강하제, 골다공증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장기 복용
- 8) 장기간의 콘택트렌즈 사용
- 9) 수면 부족



안구건조증을 유발, 악화시키는 요인들

수술적 치료 (눈물점 폐쇄)

정상적으로 분비된 눈물은 눈물점을 통해 비강을 지나 목구멍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안약을 넣었을 때 목 뒤에서 쓴 맛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 분비된 눈물이 눈에서 흘러나가는 입구인 눈물점을 폐쇄하여 눈물이 눈안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법이다.

일시적 눈물점 폐쇄 : 2~3주 지나면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성분의 마개를 이용하여 눈물점을 막는 방법으로, 라식이나 라섹수술 후와 같이 일시적인 안구건조증의 개선이 필요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영구적 눈물점 폐쇄 : 아주 심한 안구건조증과 현저한 눈 표면 질환이 있을 때는 실리콘마개로 눈물점을 막거나 전기소작술로 눈물점을 영구히 폐쇄시키기도 한다.

예방방법-생활환경 및 습관의 개선

대부분의 안구건조증에서 약물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환경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이다. 안약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점안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안약을

점안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투약을 게을리하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약물로 증상을 경감시켜주고, 장기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기 사용, 독서 등을 피하고 중간중간 바깥 공기를 잠시 쉰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해 준다.

자극성이 있는 염색약을 이용한 머리 염색, 자극성이 있는 눈화장품이나 세면용품 사용,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자동차 히터나 온풍기를 너무 높은 온도로 사용할 경우, 겨울철 아파트와 같이 건조하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서 환기를 소홀히 할 경우, 장기간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등등이 모두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외부자극을 줄이기 위한 안경을 착용하기도 한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멀리하고 가슴기를 틀어놓는 등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심한 긴장,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은 당연히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신경안정제나 혈압강하제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역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 약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날 교황님을 찾아뵙지는 않았다

- 바티칸 박물관 관람기

부다페스트 여행의 보너스를 장식할 바티칸 박물관 관람이 남아 있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에 해당되는 곳으로, 옛 로마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적극적으로 나서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고 바티칸 박물관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국가원수인 교황이 지배하는 '바티칸 시국'의 영토는 로마의 북서부에 있는 바티칸 언덕과 그 앞 인근에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베드로 대성당(San Pietro● Basilica), 교황의 집무실이 있는 사도 궁전(Apostolic Palace)과 그 안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Sistine Chapel),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Vatican Museum)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티칸 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교황님을 알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티칸 박물관을 보러 간다는 말이 되겠다.



박희용 (23회)
편집위원

부다페스트에서의 꿈같은 일정을 뒤로 하고 로마로 돌아오다가 소매치기 당한 뒤끝이라 기분이 엄청 좋았을 리는 만무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주마간산 격으로라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작품 한두 점이라도 실물로 보고 가야 “너 그거 직접 봤냐?”라고 으스스하며 한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일이라, 없던 힘도 내어 씩씩하게 메트로 A선을 타고 옥타비아노 산피에트로역(아는 말로 성베드로 역이 되겠다)으로 간다.

촌놈이라 어리바리 안내방송 들을 일도, 안 보이는 안내판 보려고 목 길게 뺄 필요도 없다. 그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99.99%는 바로 그 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이다. 그냥 거대한 인파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

개인 가이드 쓰는데 돈 아끼지 마라

- 깃발 들고 대기 없이 직통으로 입장한다

여기서 한마디. 당연히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의 경우 밀려드는 인파로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호기롭게 “일찍 가서 줄 좀 서지” 했다가는 매표소 입구도 못 가보고 발길 되돌리는 경험을 하기 일쑤다. 배낭여행이나 단체 관광을 한다면 대중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쨌든 짧은 여행 경력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중 하나는 웬만하면 돈 아끼지 말고 개인 가이드를 쓰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이드의 말씀을 절대 경청하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외국 유명 관광지의 경우 지나가다 심심하면 다 여행가이드를 하는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소위 선별된 사람들이 문화를 소개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처음에는 ‘태정태 세문단세’ 하며 시나리오를 달달달 외우는 데서부터 출발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짬밥이 쌓이면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엄청난 과외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운이 좋아 교과서적인 기본기에 더해 자기만의 필살기를 갖춘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소위 목표로 하는 유적지 앞에서 증명사진 찍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까울만큼 교과서 외적인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이드들은 깃발 들고 퇴약실에서 개장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마치 VIP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밥 한두 끼 라면으로 대중 떼우더라도 그 돈 아껴 개인 가이드를 쓸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본전 빼고도 남음이 있다.

더워서 관광객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고?

- “어 저거 어디서 봤는데”로 만족할 지어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그리 재미를 보지 못했다. 산피에트로역에 내려서 불과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입구까지 이미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햇볕이 장난 아니게 내리쬐는 날씨에 더해 변변한 그늘도 없이 온갖 나라에서 온 수많은 인파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각국의 언어가 하늘 높은 곳에서 부딪치며 거대한 소음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광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했다. 정신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다.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어렵지 않게 가이드를 만나 수십 갈래로 갈라져 대기하는 군중들 사이사이로 빠져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 한번 까딱하고는 유유히 입장하는 쾌감은 적지 않다. 입장은 도끼를 든 미켈란젤로와 책을 든 라파엘로의 조각상 밑에 바티칸 박물관(Musei Vaticani)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정문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딱 여기서 끝. 박물관 입장 전에 대기하는 작은 정원은 이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오늘 이걸 볼 거야’ 라고 훈시하듯 미켈란젤로며 라파엘로의 작품 도판을 기본으로 대기번호 수십 개가 도열해 있는 앞으로 각양각색의 깃발과 함께 인파들이 넘쳐났다.

막막한 표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가이드 말로 지금이 더 운철이라 관광객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참 성수



기에는 자기들도 설명은커녕 거대한 인파의 물결에 휩쓸려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일쑤라고 한다. 그러니 ‘어디서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찾아보려 너무 애쓰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다.

“어 저거 어디서 봤는데”라고 생각해서 한번 눈도장이나 찍을까 하면 가이드를 놓치거나 증명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라치면 도무지 각도가 안 나오는 꼴이다. 회랑이나 이동로가 결코 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공명현상을 일으켜 웅웅거리는 모습은 거대한 종교집회의 밀실 같은 느낌을 주었다. 가이드의 말은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귀 기울이다 두통까지 생길 지경이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유명한 작품 앞에서 깊은 철학적 의미는 모르지만 대가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자세로 경건하게 감상하려는 꿈은 버려야 했다. 마음을 비웠다. 어차피 제대로 봐어도 증명사진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예술 문외한에게 뭐 그리 크게 섭섭한 일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로 했다. 마음이 편해졌다. 도무지 틈이라곤 없을 것 같던 사람들 무리에서 빈 공간이 보이고 가이드의 말이 이어폰을 타고 들리기 시작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 뭐.

식상한 표현이 현실로

– 조각상의 표정이나 옷깃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어쨌든 조각공원을 지나며 섬세한 표정과 해부학적 근육의 표현이 압권이라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포함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신이라는 아폴론이나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뱀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괴로워하는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묘사한 라오콘군상을 직접 보는 감흥은 예술에 무지몽매한 내게도 적잖은 감동을 주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나로서는 대가의 워낙 유명한 작품은 압도되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고, 오히려 중학교 미술 시험에 나왔던 바로 그 목과 사지가 잘려 나가 몸통만 남은 ‘토르소’ 앞에서 제대로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상의 복구를 명했으나 그 자체로 위대한 작품에 감히 손을 댈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일화를 들으니 감동은 배가되었다고나 할까. 엄청나게 큰 대야처럼 생긴 네로황제의 욕조도 재미있었다.

조각작품이니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피에타상, 모세상, 다비드상) 중에서도 대표작이라고 하는 피에타상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사후 경직이 발생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를 조각한 ‘피에타상’은 단테의 신곡을 참고해서 체격이며 얼굴 모습 등을 조각했다고 하는데, 식상한 표현 같지만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표정이나 옷깃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발동이 걸렸다.

‘최후의 심판’ 나체에 가리개를 씌워라

– 순교자의 손에 들려 있는 얼굴 가족

뭐가 뭔지 제대로 볼 엄을 낼 형편 아님에도 이런저런 작품들을 또 언제 직접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한 작품 한 작품 스쳐 지나갔다. 소위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교차해서 언급되며 머리가 혼란해지기도 했으나 그런들 어떠하리.



(나중에 하도 억울해서 족보를 따져봤더니 다빈치가 1452년생,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이고 라파엘로가 1483년생이니 이들은 동시대를 살았던 불세출의 예술가들이자 때로는 서로 흠모하기도 하고 반대로 질시와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그중에서도 라파엘로가 막내뻘이라 형님들 틈에서 고생 좀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다.)

가이드의 설명을 중시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하도 웅웅거리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술적 향취 부분은 빼고 문득문

득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나마 작은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대표적인 것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는데, 당연히 작가 특유의 습성대로 각각의 인물의 근육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고 한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려고 성직자들이 모였는데, 그림 속 인물들이 모두 나체로 표현되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미켈란젤로가 숨지기 한 달 전 그림의 나체에 가리개를 씌울 것을 결정했는데, 다행히 그 작업을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맡아 수건 등을 그려 넣어 극히 적은 부분만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최후의 심판은 시스티나 경당 제단 뒤편에 있는 벽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린 작품이라고 한다. 심판의 날이니 당연히 분위기가 음울하고 비극적이다. 분노에 찬 그리스도, 죄를 빌고 있는 인물들의 고통스럽고 공포에 싸인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아래쪽 수염을 기른 얼굴의 노인은 순교자 바르톨로메오이며,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얼굴 가죽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초상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위대한 예술가조차 심판이 날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나 보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빈치(레오나르도 다빈치) 큰형과 마이클(미켈란젤로) 작은형의 작품은 워낙 관람객이 몰렸고(언젠가 유럽여행에서 가이드가 우리가 다 아는 미켈란젤로를 마이클 안젤로라고 불러 몹시 당혹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나마 좀 여유 있게 본 게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다.

누구나 아는 바로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 서 있는, 그 외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알지도 관심도 없었던 바로 그 그림 앞에서 가이드가 쏟아내는 설명에 신이 났다. 의외로 알만한 인물들의 이름이 톡 톡 튀어 나왔다.

아테네 학당(1508~1511년 제작)은 라파엘로가 고대 철학자들을 동시대인의 모습으로 담아내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려 한 것인데, 가로 길이가 8미터가 넘는 대작 프레스코화다.

가이드 설명이 정말 오래된 작품인데도 색상이 최근 작품인 듯 선명한 이유가 석회로 만든 벽면이 채 덜 마른 상태에서 수용성 그림물감으로 그리면 그대로 흡수되어 벽이 마를 때 표면에 고착하므로 빛깔은 변색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프레스코화의 특징이라고 한다.

어쨌든 대표적인 철학자 두 명만 달랑 모델로 내세운 게 아니라 고대의 철학자와 천문학자, 수학자들 60명 가까이를 한데 모아 그린 일종의 집단 초상화이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학자들의 얼굴을 동시대 이탈리아인의 얼굴로 대체했기 때문에 말인즉슨 고대와 중세의 짬뽕이라는 것이었다. 대가의 위엄 앞에 위축됨이 사라지니 사람 사는 재미가 풍겨져 나왔다.

그래서 가이드의 말을 나중에 대충 조합해보니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의 태두 플라톤의 얼굴은 당연히 위대한 스승이자 존경해 마지않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했으며, 헤라클레이토스는 지근거리의 시스티나 경당에서 천지창조를 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독한 천재 미켈란젤로의 경이로운 작품에 존경심을 표하고자 자신을 애송이 취급하면서도 질투와 경쟁심에 불타던 꺾끄러운 선배의 얼굴을 투영하여 나중에 덧붙여 그렸다고 한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수석건축가이자 로마 생활의 든든한 조력자이며 아테네 학당에서 차용한 배경 건물의 건축 설계도를 그린 브라만테의 얼굴을 기하학의 대가인 유클리드의 모습으로 형상화 했으며, 물론 라파엘로 자신의 얼굴을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에서 그림 밖 관람객들에게 시선을 던지는 사람으로 등장시켰다고 한다. 그러,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지!

숨은 그림찾기 놀이

- 정말 심심할 때 퍼즐 맞추기

전형적인 르네상스 건축의 좌우대칭의 원근법을 차용하여 적지 않은 수의 인물들이 게다가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정중앙의 소실점을 향하게 하는 구도로 산만한 느낌을 피했다고 한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재능 이전에 자고로 머리 나쁘면 그림이고 건축이고 할 수는 없는 일인가 보다. 배경을 보면 왼쪽에 음악과 조화의 신 아폴론 조각상을, 오른쪽에 지혜의 신 아테나의 대형 조각상을 배치해 두었고, 그 앞으로 좌우에 적당한 비율로 등장인물들을 분산시켜 놓았다. 예술사적 가치는 전문가들의 몫이고, 당시의 감흥을 간직한 채 귀국 후 위키피디아 등을 뒤져 숨은 그림찾기 놀이의 재미가 적지 않았다.

결론은 전문가들이 수 세기에 걸쳐 요리보고 조리보고 안팎으로 다 뒤집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확실한 인물들을 제외하고 라파엘로가 과연 누구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론만 할 뿐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기사 그것이 무어 그리 중요할까. 고대 철학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내 존경심을 표한 라파엘로의 마음을 알면 족할 뿐, 보너스로 어디선가 들어본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 반가움을 좀 과하게 표하면 될 일이니 그냥 재미로 할 일 정말 없을 때 퍼즐을 맞춰보며 노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관람이 끝나고 공중에서 보면 열쇠 구멍처럼 생긴 성베드로 광장(San Pietro Square)으로 나왔다. 날이 어지간히 더웠고, 성수기가 아님에도 내부 관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 치어서 그런지 광장은 오히려 한산할 정도였다. 나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스크림이나 맥주 마시러 달려간 탓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교황님이 근무하는 곳도 지적거리라고 했는데, 더운 날씨에 무엇보다 나로서는 집사람이 엇그제 로마 공항철도에서 소매치기 당했을 때 좀 심하게 욕을 한 것 외에 딱히 잘못된 일이 없어 고해성사 볼 일이 없는 관계로 특별히 교황님을 찾아뵙지는 않았다.



플라톤

자신의 저서 '티마이오스(대화편)'를 끼고 계단 위 정중앙에 서서 검지를 들어 하늘(이상주의)을 향해 가리키는 하얀 수염의 노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오른쪽에 역시 자신의 저서 '윤리학'을 허벅지에 받치고 손바닥을 펴 지상(현실주의)으로 향하고 있는 인물



소크라테스

왼편 아폴론 상 아래 있는 집단 중 플라톤에게 등을 돌린 자세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주먹코에 못생긴 얼굴을 가진 대머리 남자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그가 사랑한 미소년으로, 소크라테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투구와 갑옷 차림의 젊은 남자. 아테네 출신의 정치인이자 장군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소크라테스 옆 파란 옷을 입은 젊은 남자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

아이스키네스

알키비아데스 뒤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으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 함께 있던 제자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이자 사상가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디오게네스

세속적인 잣대를 벗어나 유유자적 자유롭게 살아간 인물(개같이 사는 지식인이라는 뜻의 견유학파)로서, 계단 중앙에 널브러진 채 보라색 망토를 깔고 비스듬히 누워 곁에 술잔을 두고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남자



피타고라스

우주 만물이 숫자로 되어 있다고 설파한 수학자로서 네 계단 내려와 왼쪽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큼지막한 책을 펼치고 뭔가 쓰고 있는 남자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 피타고라스의 필기를 어깨너머로 바라보는 터번 쓴 이슬람 철학자이자 신학자

에피쿠로스

피타고라스 뒤편, 화면 왼쪽 기둥에 기대 선 머리에 포도 이파리로 장식된 화관을 쓴 채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남자로서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을 주장한 쾌락주의자

엠페도클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피타고라스 바로 뒤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피타고라스가 그가 쓰고 있는 글을 베끼고 있는 남자; '거장 베끼기'를 선호했던 라파엘로의 자신에 대한 변론?



출처: 위키백과

히파티아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강의를 한 수학자이자 철학자로서 피타고라스의 오른편 뒤에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금발의 여성 - 남성인지 여성인지 긴가민가 하지만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으로 교황 율리오 2세의 조카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라 로베레가 모델



페데리코2세 곤차가

만토바 지역을 통치했던 이탈리아 귀족으로 에피쿠로스 팔꿈치 아래 허리를 굽히고 피타고라스를 쳐다보는 남자

제논

키프로스의 키티온 출신 철학자로 스토아학파의 창시자로서 그림 왼쪽 끝의 기둥 뒤 흰 수염의 남자



유클리드

(에우클레이데스) 피타고라스 주변 무리들과 대칭점을 이루는 오른쪽 인물들 사이 컴퍼스로 두 개의 삼각형을 그리며 기하학을 강의하고 있는 대머리 남자

프톨레마이오스

2세기경 천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로서 유클리드 곁에서 지구의의를 들고 등을 보인 남자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주인공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앞에 흰옷을 입고 천구의의를 들고 있는 남자

아리스타르코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동설을 믿은 사람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근무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로서 오른쪽 계단위 붉은 옷을 입고 혼자 서 있는 남자

헤라클레이토스

중양 하단 대리석으로 된 탁자 모양의 덩어리에 몸을 기대고 턱을 손으로 짚 채 남에게 관심 없이 자신 속에 완전히 가라앉아 종이에 뭔가 끄적거리며 사색에 빠져 있는 남자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왼편으로 한쪽 다리를 상자에 올린 채 몸을 비틀며 서 있는 남자로서 당대의 유명한 지휘관 로베레를 모델로 함. 이교도인 히파티아를 그림에서 지우라고 하자 라파엘로가 파르메니데스의 우람한 체격 뒤에 숨기듯이 그려 넣었다고 함.



(라파엘로)

제일 오른쪽 아치형의 기둥 너머 하얀 옷에 하얀 모자를 쓴 남자 뒤쪽의 그리스 복장과는 동떨어진 초록색 베레모를 쓰고 그림 밖 관람객에게 시선을 던지는 젊은 남자

코페르니쿠스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로서 오른쪽 끝 하얀 옷에 하얀 모자를 쓴 남자

손의동(22회) 약학대학 명예교수,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수상

손의동 약학대학 명예교수가 2021년 12월 22일 (수) 대한약학회 '제52회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대한약학회 '2021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대한약학회 학술대상은 학회에 학술적 기여도가 크고, 15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손 명예교수는 310여편의 연구논문, 62회 국내외 학회 초청강연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9년 소화기계 신약 개발로 보건제약산업 발전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대학에서 교육자로서 후학 양성에 기여했으며, 약학연구소장, 임상약학대학원 주임교수, 약학대학 BK연구단장 및 학장, 대한약리학회 및 대한약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이사,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중앙약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약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손 명예교수는 “정년까지 함께 해준 연구해준 연구생들과 약학대학, 그리고 모교 중앙대학교와 함께 이룬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상금은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1학년도 진정주(38회)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및 장학기금 수여식

지난 해에 이어 진정주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및 장학기금 수여식이 2021년 11월 24일 310관(100주년 기념관) 605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진정주 동문과 부군 박찬선 목사, 다수의 장학기금 수여자 학생이 참석했다. 진정주 대표는 총 1억 원의 장학기금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2억 원을 기탁



했다. 진정주 동문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지지를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먼 훗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정주 동문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0학번으로, 약과 운동

및 심리에 관한 책 '아파도 괜찮아' 및 스스로 건강의 길을 찾는 치유안내서 '내 몸이 웃는다'를 출간했으며, 유튜브 '진약사톡' 및 '10분성경톡'을 운영하고 있다.



약학대학 천영진 교수,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물연변이 발암원학회 회장 취임



약학대학 천영진 교수가 제 20대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물연변이발암원학회(www.ksot.or.kr)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물연변이 발암원학회는 1977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회원 1,2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표적인 독성학 학술단체다.

천영진 교수는 한국독성학회 부회장, 아시아독성학회 사무총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한국독성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한국응용약물학회 부회장, 대한약학회 R&D 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CRB,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약학 및 독성학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편집위원장으로 최근 발표된 한국독성학회 학회저널 “Toxicological Research”의 SCI 등재에 기여한 바가 크다.



故 손동헌(1회) 약학대학 명예교수 강의실 헌정식

지난 2021년 6월 15일 별세한故 손동헌 약학대학 명예교수의 뜻을 기리는 강의실 헌정식이 10월 2일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날 헌정식을 통해故 손 명예교수가 평생을 몸 바쳐 이끌어 온 약학대학의 주 활동무대인 102관(약학대학 및 R&D 센터) 206호가 고인에게 헌정됐다. 이날 헌정식을 기점으로 102관 206호는 손동헌 홀(SOHN DONG HUN HALL)로 명명된다.

헌정식에는故 손 명예교수의 부인인 김묘희 여사를 비롯해 장녀 손수영씨와 사위 김상원씨, 손녀 김지연씨, 차녀 손수정씨와 사위 송준호씨, 손자 송정환씨 등 유족들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은 강의실 헌정식이 열린 102관 LED 게시판에 메시지를 띄워 유족들의 학교 방문을 환영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과 김하형 약학대학장, 권석형 약학대학 동문회장(노바렉스 대표),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행사에 참석하며 고인의



뜻을 함께 기리기도 했다.

이번 강의실 헌정식은 약학대학 발전에 한 평생을 바친 고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고인과 유족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우리 대학 약학대학의 '1회 입학생'이기도 한故 손 명예교수는 생전 모교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이며 '모교 사랑'을 몸소 실천한 바 있다.

1995년 퇴임하기까지 35년간 우리 약학대학 교수로 봉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쓴故 손 명예교수는 다양한 연구 실적을 남기며 약학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환경위생학을 전공한故 손 명예교수는 환경과 약학 분야를 접목하며 국내 최초로 위생약학의 중요성을 연구했고, 1974년에는 국내 최초로 쌀의 중금속 오염 관련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업적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갔다. 그 결과 1970년과 1987년 문교부(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았으며, 1979년 대한약학회 학술상, 199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며 빛나는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故 손 명예교수가 약학대학에 얼마나 큰 애정을 가졌는지 잘 드러내는 일화로 '헌판 기증'이 있다. 고인은 2014년 약학

대학 60주년과 우리 대학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뚝 선 중앙대학교, 날아오르는 중앙 약대'란 뜻을 담은 '용립중앙 비상약대(聳立中央 飛翔藥大)' 헌판을 직접 제작해 모교에 기증했다.

이처럼 뜨거웠던故 손 명예교수의 모교 사랑은 눈을 감기 얼마 전까지도 식을 줄 몰랐다. 생전 장학기금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는 고인은 별세하기 한 달 전인 5월 15일 힘든 투병생활 중에도 모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박상규 총장은 "우리 대학 약대가 오늘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열정과 애정을 쏟아주신 교수님 덕분이다. 이번 강의실 헌정식을 통해故 손 명예교수님의 이름이 우리 중앙대학교 구성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며 "모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주신 귀중한 발전기금이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또한 그토록 사랑하셨던 중앙대학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청호손동헌장학기금	1,000,000	약학부	문해일
2	김명섭장학기금	1,000,000	약학부	변경원
3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곽준혁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양지웅
5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강지원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성용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최광휘
8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권용주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송채린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유혜
11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권하진
12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신혁민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승훈
1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최영범
1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원중
1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정원식
1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박지현
1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현진
19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송우길
20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민혜원
2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상흠
22	여동문회	1,000,000	약학	김현지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3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박신영
24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배준규
25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민병윤
26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류지원
27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노형중
28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예슬
29	부산동문회	500,000	약학부	윤새빛
30	익명	3,000,000	제약학	정혜주
31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박종현
32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고다은
33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	오준환
34	28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우유림
35	32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박창국
36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주동규
37	강서동문회	1,000,000	제약학	정우균
38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오윤석
39	칼라무스	1,000,000	약학	김서희
40	칼라무스	1,000,000	약학	배동헌
41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김문정
42	칼라무스	500,000	약학	권소정
43	칼라무스	500,000	제약학	윤소정
합 계		43,500,000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1회계년도 회비내역
2021년 5월 ~ 2022년 2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3회	강한구, 권석형,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방용남, 서동철, 정덕기, 조병훈, 최의환, 하충열 홍순욱	30회 김광식, 최병원
24회	이광섭, 이규삼	32회 함인혜
25회	이현수	35회 김진
26회	박정래, 최민규, 한갑현	36회 우경아
27회	곽나운	38회 정민영
28회	구영삼, 김희식,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39회 이정근
29회	김은진, 김형수, 이종욱	41회 김정민
		42회 이광희

이사회비		150,000원
2회	황재수	22회 강희윤, 김인선, 박동우, 손의동, 오황영, 이명옥
4회	이창우	이정석, 이현희,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5회	김채윤, 조동준	23회 김진섭, 이계석, 임동현, 정관영, 조종호
6회	김동열, 안인혁, 유관열, 유승균	24회 김승재, 임무호, 장규옥, 조종래, 황규진
7회	김정부, 이양현, 정재일	26회 김안식, 김정수B, 손영상, 윤광중
8회	김연희, 박번일, 조의환, 한석원	27회 오흥설, 최충식, 현기원
9회	권혁구	28회 김유곤, 신영무, 양창국, 이병천
10회	김광일, 김명민, 박호일, 변도문, 심수일, 유정사 정수길	29회 손병로, 유종운, 한일룡
11회	고승하,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이철규, 허정범	30회 김성배(김해승), 김연하, 김혜수, 홍성광
12회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이관하, 조택상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13회	문재빈, 박동규, 이종각, 최창엽	32회 유명식, 정영복
14회	구종모, 김동원, 박기진, 엄태항, 정진모, 조병화	33회 김영재, 이정수
15회	조찬휘	35회 강의석, 오창현
16회	고숙자, 이은솔, 최창원, 하상권	36회 이정석
17회	선우영환, 장재인	37회 이정우, 장미경
18회	강응모, 정명진, 조중형	38회 최은영
19회	김행소, 윤건섭, 이경욱	39회 박성훈, 한은경
20회	김현태, 류화승,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임경원 최석중	42회 정원석
21회	김수배, 김중효, 백운경	55회 김성태
		56회 이경민
		58회 김태수
		61회 정영섭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조근행(7회), 심재창(12회), 박광자(12회), 김기형(26회), 이지윤(46회)	

일반회비		30,000원
4회	임호식	26회
5회	문익수, 이수웅, 임맹순	김기형, 손영득, 심상수, 양승훈, 이순아, 이희영 진희역, 최종배
6회	신의명, 이만형, 이풍기, 전보연, 정진석, 진교성	27회
7회	박승면, 박용준, 유상근, 유종현, 윤근형, 윤정자 이명원, 이주학	김창식, 염승호, 이무택
8회	강윤구, 곽유환, 김의정, 안덕기, 이경길, 이백천 이태하, 장승자, 정달수, 정재영, 정재용, 정형숙 조수현, 최귀령, 허근희	28회
9회	김학진, 노신희, 이효식, 정상모, 조병일, 천진호 한정희, 황자순	김형준, 유정수, 장민수
10회	김정남, 이원일, 전광석	29회
11회	구자역,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박월준, 서세양 송상부, 심재관, 안홍신, 양계창, 장헌소, 전창환	강선영, 심미선, 이강현, 장병곤, 장우성
12회	김대건, 김신우, 김일영, 김창섭, 민명임, 박광자 박명자, 심재창, 오형철, 옥정남, 이원주, 이정희 임순성, 장광웅, 최덕구, 최승은, 최창묵	30회
13회	김길영, 김창식, 김태종, 손찬규, 우동진, 이우식	김영림, 김현학, 문미래, 송정숙, 이경숙, 최현희
14회	김명수, 김영일, 김진행, 류효성, 이희영, 전봉선 현수홍	31회
15회	강용순, 송현숙, 이덕노, 조두섭	강미숙, 구상미, 박영란, 송소연, 오대근, 유두종 이동익, 이미경, 최성임
16회	권희문, 박종애, 윤영위, 조연심	32회
17회	김태성, 신승백, 심상근, 이완철, 전상훈, 주원표	김순자, 김현경, 안승희, 임형미, 정현삼, 채영주
18회	오영선	33회
19회	남윤수	김병호, 박진범, 소정우, 전병국, 최현정
20회	김영식, 김평자, 민태형, 정동천, 정영수, 최용철	34회
21회	김진자, 백기홍, 송주식, 신길득, 안병현, 이만형 장창만	김성현, 김영미, 김진아, 노영화, 류지숙, 박상권
22회	김종궁, 양희복, 장상대, 장용운	35회
23회	강호영, 김봉래, 김순현, 김재한, 나용태, 박영근 오신환, 오항록, 이정대, 임창영, 제갈희, 천경호 한병철	김경실
24회	문숙희, 안용태, 오세홍, 윤규형, 이영주, 임철빈 정상수, 황규진	36회
25회	권세형, 김형욱, 이동규, 이수영, 이영제, 조석현	강경애, 방극상, 이명숙, 이태건, 이태경
		37회
		서승희, 신희관, 안의성, 조동환, 한덕희
		38회
		곽분임, 이강국, 이강혁
		39회
		김해종, 전병선
		40회
		박조영
		41회
		주석운, 최진희, 황윤숙
		42회
		민명기, 이창경
		43회
		김중호, 한주희
		44회
		고정봉, 김민수, 정의찬
		45회
		고기현, 권영삼, 송혜림, 조수현, 조태원
		46회
		배종구, 이지윤
		47회
		박인선
		48회
		백주민, 예현정, 정혜림
		51회
		이명원, 정주철
		52회
		이보람
		53회
		박연주, 서은려
		55회
		박재형
		58회
		한주희
		59회
		이현나
		60회
		김예슬, 이희주
		61회
		류다연, 서유정, 윤정인, 전휘섭
		62회
		구현우, 조 을



앞으론 이겨림이 맞은것일까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것이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것이다!

나는 할수있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첫번째 필요조건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 중앙인 **최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모읍시다!
성공적인 회무를 기대합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비록 전화를 통해서지만 창졸간에 당한 부친상을 마치고 조문에 대한 감사인사를 일일이 드렸다.
오랫동안 지켜봐주신 선배님 말씀이 어떤 위로보다 가슴에 와 닿는다.
"이제 저녁에 안들어가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지?"

최병원(30회)
편집위원

2021년 초도이사사회며 2022년 신년교례회 등을 어쩔 수 없이 zoom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동문회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친교의 장이며 나눔의 터전인데 얼굴 마주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어찌 가볍다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온기가 전달되고 동문회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있음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약국개설! 성공하는 약국 생활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로운누리약국(남양주 소재)
2021년 11월 신규오픈

Q1. 약국 오픈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약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약사로서 약사의 직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 중 한 명이라구요. **제가 생각하는 약사는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면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2. 개설 시 어려웠거나 고민이었던 점은?

기존에 단층으로 있던 하나로마트가 건물을 증축하면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새로 생겼어요. 주거와 마트 상권으로 유동인구를 고려했을 때,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권도 형성되기 전이지만 약국 자리를 결정하고 나니,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걱정되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지만, 막상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을 헤나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설 과정들을 안내해줄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온누리약국으로 가맹 문의를 했고 걱정이 됐던 부분들을 오픈 담당자와 함께 하나씩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Q3. 오픈과정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보건소 개설통록이 타이프하게 진행이 되어서 허가가 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약국개설 허가가 오픈일 직전에 처리가 되었죠. **약국 오픈은 해야 되고, 진열해야 할 제품들은 약국에 몇 십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허가가 나오고 오픈지원팀에서 하루 만에 진열하시는

걸 보니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오픈 당일, 고객들이 제품을 보고 직접 구매해가시더라고요. 진열해둔 제품이 바로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고객지향적 약국인가 싶더라고요. 온누리약국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Q4. 온누리약국 PB제품은 어떠신가요?

우리 약국 옆에는 약국이 하나 더 있어요. 온누리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로 차별화를 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개국 전 본사 교육에서 제품교육을 받아보니, 글루콤 외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별로 진열되어 있으니 고객들도, 저도 한눈에 제품을 찾기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으니 만족스럽습니다.



Q5. 오픈하면서 본사와의 소통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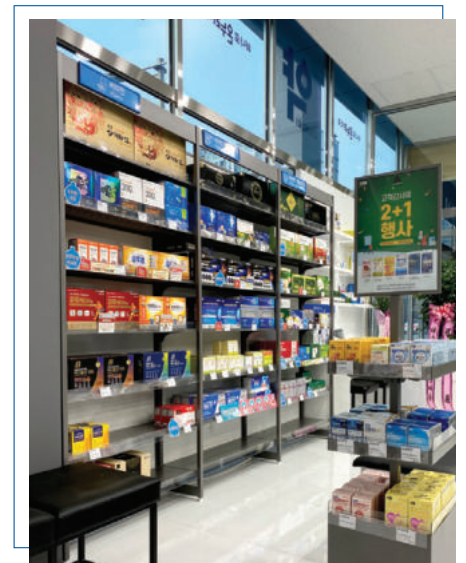


고객과의 정확한 소통을 위해, 처방 알리미 모니터를 천정이 아니라 고객의 시선과 맞는 곳으로 위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 개발팀과 인테리어 실장님과 지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의견과 본사의 매뉴얼 속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고객과의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6. 온누리약국 시스템인 온팜과 POS를 사용 중이신데 만족하시나요?

약국에서의 시스템은 꼭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 같아요. 원래 저는 다른 처방프로그램을 사용했었습니다. 온누리약국으로 오픈하면서 처방프로그램도 온팜을 사용하게 되었고 **오픈 전 교육과 오픈 후 현장에서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니 청구 외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또 예전 약국에서 근무할 때는 계산기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스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금액이 표시되니 **고객들이 우리 약국을 신뢰할 수 있고 이전보다 계산 시간도 많이 단축되어 좋습니다.** 온팜과 포스는 약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국 오픈할 때, 걱정과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혼자 하시는 고민보다는 **오픈에 대해 객관적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온누리약국체인에 문의하시길 권유 드려요!**”



“이제 약사님도 함께해보세요!”

with 온누리약국 ONNURI PHARMACY

080-552-2580

휴텍스제약이면 OK!



HUTecs

대표이사 이상일 (약학과 72학번)

HUTecs 한국휴텍스제약(주)

본사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344

Tel. 031-377-7900

Fax. 031-377-7911

공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99

Tel. 031-377-7903

Fax. 031-377-7912

Hanmi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Hanmi

자연을 연구하는 글로벌기업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호-1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